

KBS  + 정종완 · KBS미래미디어전략국 미래미디어기획부

Jazz 음악에서의 그 심오한 임프로바이제이션 속 고뇌에 대한 진단



영국의 고어(古語) 중에 “아비하고 외설스러운”이란 뜻을 가진 JAZZ라는 단어가 있다. 그리고 19세기 미국남부 흑인들 사이에는 열광과 빠른 템포, 리듬을 뜻하는 의미로 JAZZ 또는 JASS라 표현했다.

여기에 누군가가 자신의 레코드에 JAZZ BAND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을 거란 건 너무나 흔한 예측이 떠오른다. BLUES는 춤곡에서 ROCK은 성적인 의미, ACID JAZZ는 모 DJ의 편집CD에 적힌 글로서 등 음악의 역사에서 장르와 형식을 표현하는 단어는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들만의 임프로바이제이션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INTERPLAY로서의 시공을 뛰어넘는 부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몸소 깨닫는다.

Jazz History



[10인 이상의 빅밴드 구성]

재즈의 역사는 동·서양의 역사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세기 말, 아프리카의 인적노동력으로서 수출된 흑인노예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민속음악의 감각을 “Field Harler”라는 단순한 서글픈 노래로 나타내면서 흑인영가, 노동가 등으로 발전한 후 19세기 말에는 노예해방을 통한 사생활 애환의 노래로써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노래들의 모체는 바로 “블루스(Blues)”이다. 미국남부의 “Ragtime”처럼 율동적인 스타일의 피아노 음악이 유행하더니, 미국 뉴올리언즈에서는 흑인들에 의한 브라스 밴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남북전쟁에서 패한 남군 군악대의 악기를 흑인들이 값싸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초기의 재즈는 뉴올리언즈의 흑인 브라스 밴드(Brass Band)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고, 흑인 특유의 감각과 리듬감을 바탕으로 정석적인 독보력(讀譜力, 악보를 보는 능력)이 없어도 melody와 harmony를 외워 쉽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악기의 연주자는 트럼펫 또는 색소폰 연주자로부터 시작되었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트럼펫과 트롬본, 클라리넷 등 클래식 관악기를 위주로 한 집단 즉흥연주(collective improvisation)와 앙상블(ensemble) 스타일이 많았는데, 이것이 뉴올리언즈 재즈(New Orleans Jazz)이다. 이 시절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루이 암스트롱(R.Armstrong)이다. 이 시절 백인들은 시카고(Cicago)를 위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후에 뉴욕을 중심으로 한 빅밴드의 전신이 되기도 한다.

1936년 클라리넷 연주자인 베니 굿맨(Benny Goodman)은 경제 불황의 회복기라는 시기적 조건을 힘입어 춤곡인 Swing에 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백인악단의 세련되고 신선한 댄스음악(일명 swing이라고 불리움)은 이후 전후시대에 소편성악단(combo)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뒷부분에서 설명하게 될 「솔로리스트로의 재즈 매력」인 것이다.

전후시대 이전이 빅밴드 또는 앙상블 등 브라스 위주의 춤곡이었다면, 전후시대는 솔로악기인 피아노, 색소폰 등이 리드하는 소규모 밴드로 소형화되었다는 것이다.

잠시 재즈편성에 대해 구분하자면, 1945년 이전의 빅밴드는 기본적인 드럼, 베이스, 피아노, 기타 외에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바이올린 등 다수의 브라스(Brass)가 편성되었다.

이후에는 3인조를 뜻하는 트리오(Trio/드럼, 베이스, 피아노), 4인조를 뜻하는 Quartet(쿼텟/ 드럼, 베이스, 피아노, 기타 또는 색소폰 등), 5인조를 뜻하는 Quintet(퀸텟/드럼, 베이스, 피아노, 색소폰, 트럼펫 등), 6인조를 뜻하는 Sixtet(식스텟/드럼, 베이스, 피아노, 색소폰, 트럼펫, 기타 등) 등 좀 더 세분화 된 밴드 형식으로 변하게 된다.

Swing에서 Afro-Cuban까지



[Trio 구성 - 드럼, 베이스, 피아노]

1940년대 들어서면서 swing jazz의 매너리즘은 뉴욕의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운 재즈 탐구의 기회가 되는데, 잼 세션(Jam session)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등장시키면서 “BeBop”이 생겨나게 된다. 디지 길레스피, 찰리 파커 등 특이한 코드진행과 불협화음의 mode 등은 곧이어 모던 재즈(modern jazz)의 모체가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비밥(BeBop)은 내성적이며 정적인 솔로와 앙상블의 균형을 내세운 쿨 재즈(Cool Jazz)를 낳게 되었다.

마일스 데이비스(Miles Davis), 스탠 게츠(Stan Getz)의 쿨재즈부터 미국 서해안 LA의 백인들에 의해 발전된 웨스트 코스트 재즈(West Coast Jazz)는 지금까지도 마니아들에게 칭송받고 있는 빌 에반스(Bill Evans)를 탄생시키게 된다.

한편, 쿨 재즈의 정적인 솔로를 미 동부에서는 흑인적인 파워풀한 솔로연주로 승화시켜 이스트 코스트 재즈(East Coast jazz)로 불리게 되는데, 이는 훗날 펑키(Funky), 소울(Soul)의 시초가 되기도 한다.

이후의 재즈는 Free Jazz, Fusion Jazz 등 다소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타 장르와 혼합된 형식으로 발전되면서 현재에는 하나의 장르로 구분되는 컨템포러리 재즈(Contemporary Jazz)를 만들게 된 요인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재즈가 다분히 미국에서만 발생하여 미국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아니라는 것이다. 애초의 미국으로 건너간 흑인들 외에 남미(브라질, 쿠바, 아르헨티나 등)로 건너간 흑인들은 현지 토속음악과 접목하여 라틴음악을 발전시키고, 보사노바(Bossanova), 삼바(Samba), 탱고(Tango)를 탄생시키게 된다.

여기서 필자가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프로-쿠반(Afro-Cuban)이다. 단어 그 자체 풀이와 같이 아프리카의 민속음악과 쿠바음악이 접목된 독특한 형식과 양식을 가진 스타일이다. 아마도 현재 연주되는 재즈 스타일 중 프리 재즈(Free jazz)를 논외로 한다면 가장 난해한 곡 구성, 연주자들의 독창적인 솔로 스타일, 다양한 리듬 워킹(Rhythm Working)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드럼 외에 다양한 퍼큐션 등 리듬 터치에 이 부류만의 특징일 것이다.

그들만의 핑거링 임프로바이제이션



[Quartet 구성 - 드럼, 베이스, 피아노, 기타]

흔히 대중가요 또는 팝음악을 듣게 되면 소위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다. 모든 예술문화의 장르에서도 동일하겠지만, 굳이 음악이라는 장르에서는 그 체계적인 시스템은 여타 부류와 다르다는걸 알게 된다. 곡의 핵심이 되는 테마(혹자들은 사비(sabi)라고 많이 부른다)와 간주라고 보통 불리우는 리드악기의 애드리브(자유연주 또는 즉흥연주)가 있다.

팝, 트로트, 힙합, 락, 펑키 등 장르와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르에서 공통점은 바로 이 두 가지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들 두 파트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사비(sabi)와 간주(adlib)는 분명 동질의 성분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 두 가지는 동일한 코드(chord, 화성)와 동일한 화음(harmony), 동일한 박자(rhythm, 리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사비(sabi)를 멜로디(melody)라 하고 간주를 솔로(solo)라고 하면 솔로는 멜로디를 무한 확장한 것이고, 이것은 동일한 화성과 화음, 박자를 바탕으로 전개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여러 재즈연주자들의 미디시퀀서인 밴드인 어 박스(Band in a box)를 사용하게 되면 멜로디스트(melodist)와 솔로리스트(soloist)라는 기능이 있다. 적절한 코드 진행을 입력하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적당한 멜로디 테마 또는 솔로(애드리브)를 만들어주는 대단한 프로그램 유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법칙이 있다. 절대로 화성과 화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재즈에서 쓰이는 불협화음 또는 다양한 모드(mode, 선법)를 적용한다면 조금은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분명 연주자의 감성까지 담을 순 없다.

필자의 학창시절, 록 기타리스트의 현란한 솔로 애드리브를 들으며 한동안 멍했던 적도 있었다. 당시 유행하던 음악인지라 자주 들었지만 그 속도로 표현할 수 없는 빠른 비트와 빠른 음계의 나열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코드와 스케일, 거기에 멜로디. 우리가 흔히 익숙한 장조의 음계로도 무수한 음의 나열을 할 수도 그리고 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다만, 기타의 현과 피아노의 건반이 담아내는 한계를 벗어나는 건 연주자의 손가락이라는 것이다.

흔히, 통기타로 치면서 노래를 부르다 우연히 치게 되는 코드 몇 개가 있다. “C - Am7 - Dm7 - G7” 이런 식의 코드진행이라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코드가 스케일이라는 음계의 대표음들로 구성된 집합이고, 이 대표음들이 마디와 소절마다 바뀌게 되면 코드진행, 즉 하나의 노래가 진행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improvise는 원래 펼쳐져있던 대표음들의 많은 구성음을 다시 재결합시키고 독특한 음계의 조합으로 새롭게 만들어진다. 즉, 「스케일 → 코드톤 → (아르페지오) → 멜로디라인+솔로 ⇒ 임프로바이제이션」이라는 공식이 된다.

마치며

일반인들의 관심은 기존 전문 음악인들의 범주를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분야까지 나아가 있다. 분명해진 멀티미디어와 p2p 기술의 발전을 통한 고급 음악정보의 현란한 공유가 한 몫 한 것 같다. “직장인 음악동호회”라는 여타 전 세계국가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의 많은 직장인이 활동한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볼 수 있겠다.

고급음악으로 불리우던 classic은 동네 아이들의 취미거리가 되어버렸으며, jazz는 유명한 레스토랑의 BGM으로, Rock은 rare한 음악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만큼 대중화 돼버린 음악들이 사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말저녁 흥대 또는 신촌에는 많은 직장인 음악동호회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 대다수는 가요 또는 외국 팝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분들 외에 전문 재즈 연주 못지않은 디테일한 연주를 구사하는 동호회들도 많아졌다고 한다. 정식 커리큘럼이 아니지만 순수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Jazz가 사실 진정한 대중 속의 음악이 아닌가 생각된다.

dimish scale과 altered scale의 음들 속에는 분명 그들만의 jazzy한 feel을 구성하였고, 블루 노트(blue note)는 F blues scale의 다섯 번째 음에 옮김으로써 그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 이장섭 · 방송과 기술 기자

한여름 해변의 축제 비치발리볼



비치발리볼 역사

- 1920년대 초에 하와이의 해변에서 6인 팀이 경기를 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포츠의 기원이, 비록 같은 시대였으나,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미국)에서 가족들끼리 6대6으로 경기를 한 데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한다.
- 1927년에는 비치발리볼은 프랑스에서 경기를 치르게 됨으로써 유럽에서 처음 행해졌다.
- 1930년대에는 유럽의 다른 지방에서도 진행되었고, 미국에서는 4대4, 3대3경기도 이루어졌다. 초기의 규정들은 스매싱(스파이킹)과 블로킹을 금했고, 서브 리시브를 위한 수비기술은 개발되지도 않았다.
- 1947년 스테이트 비치에서(Stat Beach, 캘리포니아)에서 최초의 공식 2인조 비치발리볼 토너먼트가 열렸다.



- 1950년대에는 미국에서 최초의 서킷(순회)이 발족되었고 브라질에서는 처음으로 대회가 개최되었다.
- 1960년대에는 스매싱과 블로킹이 인정되었고 디깅 소개, 도입되었다.
- 1976년에 최초의 세계 선수권이 스테이트 비치와 퍼시픽 팔리사데스에서 열렸는데 이 대회가 비치발리볼의 프로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대회에서는 상금으로 5000불을 내걸었다).
- 1982년에 비치발리볼은 리우 데 자네이루의 꼬빠까바나(Copacabana)와 이빠네마(Ipanema)의 해변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었다. 4년 후인 1986년,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는 5000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 시범 경기가 펼쳐졌다. 1987년, 이빠네마에서의 토너먼트는 FIVB 월드 시리즈(남자 서킷)가 생겨나 브라질, 일본, 이탈리아에서의 토너먼트가 개최되고 각 대회의 상금으로 50000불이 내 걸렸다.
- 1992년에 비치발리볼은 전 세계를 강타하는 프로 스포츠가 되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시범 경기로 채택되었으며 최초로 여자 세계 선수권 시리즈가 개최되었다. 일 년 후인 1993년,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비치발리볼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였다.
- 1994/5년에 FIVB는 6개의 남자대회와 6개의 여자대회를 세계선수권 시리즈로 열어 남자대회의 경우 100000불, 여자의 경우 500000불의 돈을 대회 상금으로 내 걸었다.
- 1995/6년에 비치발리볼은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FIVB 투어는 5개 대륙에서 29개의 국제 대회로 확장되었고 상금의 총액은 3650000불로 이 투어는 올림픽 예선경기의 일환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현장에서 80만의 관중과 5천만의 TV시청자를 모으게 되었다.
- 1996년에 FIVB는 세계 선수권 시리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였고,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 그랜드슬램, 월드 시리즈, 챌린저, 그리고 어떠한 나라에게도 개방된 대회시스템(Open competition system)의 일환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고 비치발리볼이란 스포츠가 역사상 처음으로 애틀랜타의 올림픽 대회에 처녀 출전하게 된다.

비치발리볼 현황

국제적 현황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치발리볼(Beach Volleyball) 경기는 문자 그대로 비치 즉, 모래가 있는 해변에서 벌어지는 지구촌의 가장 인기 있는 여름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다.

비치발리볼은 1920년대 미국의 산타모니카해변에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해변가의 인기 스포츠로 정착되었으며 4인제, 3인제 게임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국제배구연맹에서는 공식적으로 2인제 비치발리볼 경기를 도입하였다.

올림픽대회 비치발리볼은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1993년 9월 24일 IOC의 승인으로 1996년 아틀란타올림픽대회에서 정식 메달종목으로 채택되어 남자 24팀, 여자 16팀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아시안게임 비치발리볼경기는 OCA의 결정에 따라 '98년 제13회 방콕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식 메달종목으로 채택되어 2002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까지 치러졌다.



국내적 현황

우리나라는 1990년도에 한국비치발리볼연맹을 창립하여 제1회 비치발리볼대회를 열었고 1991년 ~1996년까지 각종 국내대회개최 및 국제대회에 대표 팀을 파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대한배구협회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비치발리볼 선수육성, 저변확대 등 비치발리볼 활성화를 위하여 '97. 8.19~21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제1회 전국 남·여 비치발리볼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7.31~8.3간 통영에서 세계 슈퍼 비치발리볼대회와 '97 FIVB 비치발리볼 월드투어('98.8.15~17, 부산)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비치발리볼에 대한 배구 팬과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또한, 협회는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한국비치발리볼시리즈(1~3차)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99,2000 한국비치발리볼 시리즈 국내경기에서는 3인제 게임을 도입하여 비치발리볼의 재미를 한층 더했으며 2003년에는 전국비치발리볼선수권대회와 세계슈퍼여자비치발리볼대회를 개최하였다.

비치발리볼 활성화를 위한 보다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대회 개최준비를 위하여 연맹의 창립필요성이 배구계 전반에 인식되어 2004년 10월 한국비치발리볼연맹을 재창립하였다.

한국비치발리볼연맹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초청하여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를 매년마다 성황리 개최하고 있으며, 하계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추세

비치발리볼이 올림픽,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국제배구연맹에서 월드투어대회(매년 개최), 세계선수권대회(4년 주기),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2년 주기) 등 세계적인 비치발리볼대회를 개최하며, 아시아지역에서 아시아서킷대회 개최 등 국제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비치발리볼경기가 이루어지고 미국, 유럽, 남미지역에서 하계 인기 스포츠로 정착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활발한 비치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소 비치발리볼 도입이 늦어진 감이 있어 아직 그 기반이 미약하나 한국 배구의 국제적인 위상으로 볼 때 선수 육성은 물론 각종 국제대회에서 상위 입상 등 국위선양을 위한 전망은 매우 밝다.

2010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일정

- 부산 해운대 : 7월 19일~21일
- 태안 몽산포 : 7월 26일~28일
- 거제 구조라 : 7월 29일~30일

자료제공 : 한국비치발리볼연맹(www.kbeach.or.kr)



JVC

JVC www.jvc.co.kr

The Perfect Experience

MITO는 일본 3대 A/V 가전 브랜드인 일본 빅터(Victor Company of Japan, Ltd.)의 한국 공식 수입 판매원입니다.

MITO는 JVC 제품 판매 및 서비스망을 전국적으로 구축, 하드디스크 캠코더, DVC, DVD, TV, VCR, 컴퍼넌트 미니 오디오 등 가정용 A/V제품뿐만 아니라 프로젝터, 방송장비 부문과 더불어 보안장치(Security) 관련 제품 및 각종 디바이스(Device) 관련 제품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 뛰어난 품질과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좋은 제품의 보급을 통해 JVC 및 MITO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나가는 것을 영원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D to 3D Converter

3D Image Processor

